

特許文獻은 왜 찾아야 하나 ?

KORSTIC 業務部長 馬 東 城

近者에와서 産業界와 研究機關에서 特許文獻의 調査利用이 增加된 現象은 이것이 科學技術의 發展과 向上에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說明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나라 産業의 基盤을 形成하는 要素의 하나로서 科學技術이 있어야 하고, 特許文獻은 最新의 科學的 情報을 迅速히 提供하는 것으로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다.

生産企業體가 이것을 無視할 때에는, 恒常 높은 技術水準을 維持하면서 發展시키기가 困難할 것이고, 他人의 特許를 侵害하여 모처럼 始作한 事業을 中斷시 않으면 아니될 境遇도 생긴다.

이와같이 特許調査의 必要性은 企業運營을 爲하여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後進성을 띠는, 即 技術的 鎖國時代에는 特許에 對한 認識이 微弱한 것이고 特許明細書는 特許權을 表徵하는 한個의 法律的 文書程度로 밖에 생각치 못했으나 技術革新을 부르짖는 時代에는 그 態度를 바꾸지 않으면 國際的인 競爭에 參與조차 못한다.

先進國 企業體에서는, 莫大한 研究費를 投入하여 恒時 新製品의 生産에 血眼이 되어 있고, 自己業體의 發明으로 市場開拓을 할 수 있다고 豫想되는 世界 各國에 出願하여 그 特許權의 保護밑에서 自己製品의 販賣나, 有効한 市場確保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後進國에서는 이와같은 特許攻勢에 對處하기 爲하여서라도 特許調査를 充實히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特許文獻調査의 目的은 一般的으로 特許法에 따른 調査와 最新 技術情報源으로서의 活用이 될것이다. 다시 特許法에 따른 調査를 大別하면, a) 特許出願調査, 即 自己發明이 既히 他人의 特許明細書로서의 公告(發表)與否, b) 特許異議申立이나 無効審判을 提起키 爲한 調査, c) 企業計劃이나 研究計劃을 樹立하거나, 新製品을 販賣할 때, 그것이 第三者의 特許에 抵觸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한 調査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의 特許出願前의 調査는 歐美에 있는 會社等에서는 이것을 徹底히 하며 過去의 特許나 一般文獻에 記載된 事實이 없다는 確信이 서야 出願하게 된다. 따라서 辨理士는 明細書를 作成하기 前에 調査費를 받고 調

査結果를 出願人에게 通告하며, 請願書提出 與否를 出願人으로 하여금 決定케 한다. 그 까닭은 모처럼 얻은 特許가 將次 先行技術과 同一 또는 類似할때, 特許權 自體를 喪失하거나, 權利範圍를 制限 받아 그 特許에 依한 製品의 生産販賣計劃에 큰 墜跌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같은 充分한 調査에 基因하여 特許出願하는 일은, 無効한 出願을 防止할 수 있을뿐더러, 特許局 審査官의 審査上 手苦를 덜며, 國家的으로 볼때 많은 經費를 節約하게 된다.

現在 우리나라 出願의 大部分이 過去에 나간 特許와 同一 또는 類似하다는 即, 新規성이 없다는 理由로 拒絕된다고 듣고 있다.

다음에 b)의 特許異議申立이나 無効審判을 爲한 特許調査는 이것 亦是 利害關係가 있는 企業體로서는 等閑히 할 수 없는 일이다.

特許明細書는 어느時代이고 當時의 尖端을 갖는 技術의 詳細한 記錄이고, 이것을 調査하므로 既往의 技術調査의 過半目的을 達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c)의 企業이나 研究를 爲한 調査는 이것이 企業家나 研究者가 그 方向을 決定하기에 必要不可欠한 일이다. 이것을 研究課題의 選擇이나 研究方向의 決定前에 하면 不必要한 研究의 重複을 避할 수 있다. 또 어떤 企業計劃의 內容이 他人의 特許權을 侵害하는 일이 생기면 最惡의 境遇 莫大한 投資도 無効로 돌아가게 되며, 計劃決定 前에 그것이 判明되면 侵害를 避할 수 있을뿐더러 侵害치 못하는 方向으로 方法을 變更할 수가 있다.

外國의 一流企業體에서는 特許部門에 審査官 經驗이 있거나 同程度의 人員 數十名을 確保하고 調査業務를 專擔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다.

最新技術情報로서의 特許調査는 科學技術이 日進月步하는 오늘날, 特許文獻을 早期에 보는 일은 産業의 第一線에서 活動하는 分에게 無視할 수 없는 重要な 일의 하나이고,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外國特許公報도 보아야 된다. 勿論 韓國에 出願하는 外國人의 出願도 있어 韓國公報에도 실리지만 本國出願時期

(P. 20左下段에 繼續)

		171	84	255	
B	企業體分野別	서울	地方	計	備考
	化	工	133	129	262
	製	藥	76	30	106
					1964年全國會社名鑑 (서울商工會議所刊 行)
	機	工	66	70	136
	紡	織	42	84	126
					1963年全國企業體 總覽(서울商工會議 所刊行)
	製	紙	32	25	57
					1963年全國中小企業 組合員名簿및 1964年
	食	品	30	50	80
	電	氣	26	15	41
					職業別電話番號簿等 에서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선정했다
	金	屬	18	17	35
	農	化	11	21	32
	業	業	11	56	67
					1)設立年度오래된것 2)生産品別 3)資本金百萬元 以 上
	土	木	9	25	34
	其	他	22	13	35
					4)表示된 技師數 5)分野別
	計		476	531	1,011

위의 A.B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할 수

있다.

A에 있어서 總對象處 255個中 將次 KORSTIC을 利用할 個處數를 50%로 보면 約 127個處가 算出된다.

다음 B.에서는 1,011個處中 KORSTIC 利用可能 個處率을 30%로 보면 約 300個處가 算出된다. (여기에서 A의 50%와 B의 30%는 經驗에서 얻은 大略的인 率이다).

以外에도 現在 KORSTIC을 利用하고 있는 個處數 220個處 따라서 KORSTIC 利用可能處數의 總計는 647 個處(A.127+B.300+現22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때 우리나라의 情報需要市場은 決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今年度에는 期하기 어렵겠으나 1966年度에 萬一에 1964年度의 一個處當 21.8件의 複寫提供件數가 維持된다면 總複寫 提供件數는 約 14,000件(647個處×21.8件)程度가 되지 않을까 期待를 걸어 봄 직 하다.

以上을 綜合할때 KORSTIC의 情報提供의 展望은 確으나 樂觀視된다. 그러나 受動的인 情報活動은 그 많은 展望을 決코 現實化 할 수 없다. 近代經營이 需要增加를 爲하여 積極的인 P.R.을 極히 重視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附記하여 둔다.

(筆者 業務部長 在職時 本稿 脫稿)

(P. 23에서 繼續)

보다 훨씬 늦게 出願하고, 公告까지 되자면 2~3년이 지난다. 가장 迅速히 特許情報를 얻으려면 歐洲것이 좋다. 그 理由는 無審査制度인 佛蘭西가 出願後 1年程度, 審査國인 獨逸이 出願後 6個月 程度, 英國이 1年內外로 公告되는 까닭이다. 美國은 出願件數도 많고 公告되자까지 이 期間이 歐州 各國에 比하여 늦으나 重要한 發明이 많다.

特許出願은 特殊한 學者의 發表를 除外하고는, 一般 技術文獻의 發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들을 恒時 監視하고 正確하게 把握하는 일은 틀림없이 世界에서 가장 새로운 技術情報를 얻는 길이 된다.

위의 같은 理由로 業務 開始한지 2年밖에 아니되는 當KORSTIC에 있어서도 外國特許에 關한 複寫依頼申請이 날로 激增하고 있음은 當然한 現象인 同時에 慶賀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隣近 日本特許는 10餘年分을 所藏하고 있으나 앞에서 論及한 歐州地域特許는 豫算關係로 具備치 못하고 있고, 美國特許와 日本特許로서 速報를 내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라도 十二分 KORSTIC을 活用하여 韓國의 企業과 研究 開發에 實效가 있을 것을 期待하므로 KORSTIC 全 體에 對한 努力을 잊고 일하고 있다.

(P. 1에서 繼續)

속(鋤)쓰러 가고 이그러져 가서 우리의 三大目標니 近代化課題니 自立經濟니 등은 虛無한 科學技術的 基盤의 外面에서 空轉하며 畸型兒가 될 狀態에 있다. 科學技術의 研究는 奢侈스러운 華麗한 필딩을 要求하지 않는다.

「에디슨」같은 한 사람의 科學者의 頭腦에 依하여 여러 사람의 富와 여러 國家의 富를 만든 例가 歷史上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優秀한 頭腦의 所有者가 많이 科學技術에 興味와 意慾을 갖도록 科學技術者의 待遇와 研究條件(研究機關, 科學技術情報센터, 研究豫算等)을 잘 만들어 준다는 것은 科學技術振興策에서 가장 重要한 일인 同時에 이것이 自立經濟를 爲始한 우리의 當面한 모든 目標를 達成하는데 있어서의 先行條件이 된다는 切實한 認識을 爲政者가 갖는다는 것은 또 그에 앞서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